JIPYONG NEWSLETTER
법무법인 지평 |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JIPYONG
2016년 1월호

▌화제의 뉴스 ▌

"이번엔 손해배상 폭탄이"... 정부 입찰담합 줄소송에 건설업계 '비상'

정부의 담합사건 손해배상 소송이 건설업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최근 공공공사 입찰에 담합을 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철도도시공단은 최근 각각 주배관 공사 및 호남 KTX 공사와 관련해 입찰가격을 담합한 관련 건설사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공정위로부터 담합 사실이 적발되어 각각 1,746 억 원 및 4,355 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공공사업 관련 입찰담합을 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법무부의 국고 환수 송무팀을 정비하여 공공 입찰담합에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금전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와의 소송이 회사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해외 사업 수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 조선비즈 - "이번엔 손해배상 폭탄이"... 정부 입찰담합 줄소송에 건설업계 '비상'(2015. 12. 2.)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